

한국지역개발의 지역지표를 통한 실증적 분석연구

이 병 철
행정 학 과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의 개념분석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필요한 지표군을 정밀분석하여 한국의 지역개발의 특성과 도시성장의 원인을 추론해 낼 수 있는 지표를 발견,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계열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시킴과 동시에 실증적으로 한국의 지역개발상황에 적용하여 지역개발정책에 필요한 관리지침과 정책적 대안책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1개의 도시를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지역지표체계를 설정하여 실증적 검증을 하였다.

1. 지역지리학적 지표와 지역인구학적 지표
2. 지역경제학적 지표
3. 지역복지 및 서비스지표
4. 지역위락 및 문화지표

한국 지역 개발의 지역지표를 통한 실증적 분석에서 발견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지역개발의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도시발전은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인구증가는 자연적 증가요인보다 인위적인 인구이동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인구 밀집지역이 도시발전을 촉진시키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쇠퇴한다.

셋째, 인구억제 및 분산정책, 산업화 정책추진, 교통수단의 변모, 소득수준의 향상, 도시정책에 대한 대국민홍보, 국민의식 변화, 보건복지, 교육정책의 영향등이 도시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넷째, 중부권 개발정책등과 같은 정책적 배려나 행정수도로의 전환과 같은 도시기능의 변화가 지역발전에 커다란 영향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다섯째, 도시의 재정과 도시성장과는 깊은 상관성을 지닌다.

여섯째,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은 도시의 기능적 진화에 따라 증가되고 있으며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일곱째, 위락 및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형적 도시개발에 의해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제기되는 이슈를 해소키 위한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자원에 대한 분배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지역적 편견에 따른 정책적 배려들을 배제시키고 국토의 균형화된 발전을 위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러면서도 정책간의 상관성을 고려한 균형된 시각의 개발전략을 구상해야한다.

둘째, 양적이고 가시적인 홍보 및 선전위주의 지역개발은 배제되어야 하며 현실점에서 비생산적이고 비가시적이라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수 있는 분야는 개발될수 있는 질적으로 고양된 지역개발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An Empirical Study to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 Policy Proposal

Lee, Byung-Chul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plication of indicators to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through a survey of the literature, leading to identification of indicator, and to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raw data.

This effort to identify and ideographic theory of Korean regional and urban studies especially, in the view of the policy sciences, through the analysis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trends, by utilizing regional indicators, extends its focus to forecasting the futur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For this study, eleven cities are selected and the following indicators are considered

1. Regional geographic indicators and regional demographic indicators
2. Regional economic indicators
3. Regional welfare and service indicators
4. Regional leisure and culture indicator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ndicate as follows:

1. Urban and regional functional characteristics influence to regional development differences
2. Korean urbanization correlates with population growth
3. Urbanization has influence as:

Zero population growth movement, population relocation policy, economic development

policy, industrialization, transportation device change, income growth, public relation, citizenship change, medicare, welfare and educational policy, etc.

4. Regional development have influenced by policy bargaining, and urban structure and function change
 5. Urban finances correlate with urban growth
 6. With urban functional evolvement, medicare and social security facilities are increased, and then these facilities are located densely in the metropolitan area
 7. Leisure and cultural space run short because of malfunctional urban development policy
- Finally, some recommendations are drawn
1.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ied concern about equality and fairness of regional development. It is considered the fact that the correlationship among many regional policies are important.
 2.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ied discard propaganda and visible performance oriented regional policy. They should pursuit the future oriented regional policy even though it is unvisible and unproductive performanc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1,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60년대이후 전국토의 종합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다. 1972년 부터 시작되어 1981년에 끝난 1차국토 종합개발계획에서는 거점(growth pole)개발방식을 채택하여 국가의 기간산업, 중화학공업벨트를 형성하고 이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차개발 계획기간중 과도한 수도권인구의 집중 그리고 불균형성장전략을 기반으로한 농촌의 낙후, 국토이용의 양극화, 지역간의 불균형성장등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82년부터 시작되어 91년에 종결키로 되어 있는제2차 국토개발계획에서는 인구의 지방분산, 지역간의 형평개발등을 목표로 지역주의(regionalism)개념을 국토개발계획에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분산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전국토의 균형개발을 이루어 지역정주생활권을 확립하려는데도 사업의 주안점이 두어졌다. 즉, 대구, 광주, 대전을 3대 성장거점도시로 선정하고 춘천등 12개 지방도시를 제2차성장거점도시로 선정하여 집중개발투자함으로써 전국토에서의 정주생활이 가능해지고 지역주민들도 골고루 발전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87년 선거와 민주화추세에 따른 지방자치제의 실시의 가시화에 따라 그 동안 국가정책에만 의존하던 정치, 행정체제는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가 곧 실시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고 참여의 폭과 질이 넓어지고 심화됨으로써 더 이상 중앙정부가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지휘하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어렵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 조정하며 또한 지역정부간의 이해관계대립에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되어 지역개념이 국가정책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총괄적으로 지역제반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¹⁾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이제는 지역개발정책도 거점개발이나 낙후지역개발이라는 소극적, 치료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생활권개발을 통한 전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맥락에 기반을 두고 인간정주체계(human settlement)를 구축해 나가는 포괄적인 개발방식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개발의 포괄적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지표(regional indicator)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겠다. 적절한 지역지표발굴을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갈등의 추이등을 측정하고 사전에 조정, 예방함으로써 국가통합의 계획지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역의 개념분석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필요한 지표군을 정밀분석하여 한국의 지역개발의 특성과 도시성장의 원인을 추론해 낼 수 있는 지표를 발견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시계열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시킴과 동시에 실증적으로 한국의 지역개발상황에 적용하여 지역개발정책에 필요한 관리지침과 정책적 대안책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 방법

상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키위해 본 연구는 지역개발 및 사회지표와 연관된 관련문헌분석을 통해 각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고 이 과정을 통해 추출된 지표를 한국의 지역개발상황에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지역개발의 특성과 문제점을 적출하고 이에대한 대안책을 강구토록 한다. 연구지역의 단위는 특화시킨 11개도시로 국한시키고 전국평균치를 전국지역단위로 설정시켰다. 여기서 연구설계상 특화된 11개도시는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춘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마산이다. 이렇게 11개도시로 특화시켜 선정한 논거는 전국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키위해서 행정구역별로 구분지웠으며 그래서 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는 특별시, 직할시 및 각 도의 도청소재지인 것이다. 다음 전국의 지역간 개발도와 개발의 균형도 그리고 지역간 개발특성 그리고 그 내용, 도시성장의 원인과 도시간, 지역간의 상호영향관계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키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될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시킨 11개도시의 평균가구원수와 전국평균가구원수, 둘째, 특화시킨 11개도시의 년평균인구성장률과 전국년평균 성장률, 셋째, 특화시킨 11개도시의 년평균차량 증가율과 전국년평균 차량증가율, 넷째, 특화시킨 11개도시의 총병상수를 사용한 의료시설의 증가추세와 전국추세, 다섯째, 특화시킨 11개도시의 사회복지시설추세와 전국시설추세, 여섯째, 특화시킨 11개도시의 공공체육시설의 증가추세와 전국시설증가추세, 일곱째, 특화시킨 11개도시의 도시공원의 증가추세와 전국증가추세, 여덟째, 특화시킨 11개도시의 총종업원수와 그 증가추세

1) 정책지표(policy indicator)는 정책을 형성, 집행,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효율적 관리지침이 되며 정책평가체계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거나 보완하며 기획할 수 있는 정책순환의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지표연구는 사회발전을 가름하는 척도로써 사회지표(social indicator)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왔고 사회지표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양적인 자원의 지표군들을 중심으로 국민소득, 총생산, 고용, 실업, 교육, 의료, 주택등 정책의 분석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현 상황의 평가를 통해 미래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증가추세, 마지막으로 특화시킨 11개도시의 시가 사용한 결산규모와 전국규모이다. 여기에서 부연할 것은 사용된 모든 지표가 객관적 지표라는 사실이다.²⁾

II. 지역지표의 개념과 이론적 체계

1. 사회 및 정책지표의 개념 및 이론체계

1960년대 중반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사회지표는³⁾ 주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양과 관련된 지표들을 산술적으로 지수화하여 사회개발 특히, 산업사회의 외면적 변화를 측정 분석하기에 유용한 도구로 여겨져 왔다. 구미(歐美)에서 개발된 사회지표는 원래 복잡다기한 사회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할 목적에서 연원되었지만, 이후 산업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사회회계체계(system of social accounts)⁴⁾의 개발이나 사회보고(social reporting) 체계⁵⁾의 개선

2) 주관적 사회지표가 객관적 사회지표와 가장 크게 다른점은 객관적 지표가 인간의 행태, 환경조건, 심리상태 등을 훈련된 관찰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 반하여, 주관적 사회지표는 각 개인들이 자신의 태도, 판단 정서적 상태, 욕망 등을 스스로 측정하는데 있다.

Ian Miles, *Social Indicators for Human Development*(London:Frances Printer Publishers, 1985), p.67. 객관적 지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원에의 접근도에 중점을 두는 반면, 주관적 지표는 주로 개인의 욕망과 만족도를 현시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Doh C.Shin, "Value Preferences and Quality of Life in Korea:An Exploration into Unknown Territory" 그러나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객관적 사회지표의 분계선을 명확히 긋기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객관적인 사회지표로 구분되는 것도 어느정도 주관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관적 사회지표도 얼마간은 객관적 측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Frank M. Andrews and Stephen B. Withey,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New York:Plenum Press, 1976), p.5.

그래서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회지표가 사회현상을 총체적으로 나타내 주려면 주관적 사회지표와 객관적 사회지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3) 사회지표구성의 효시는 1964년에 출판된 러세트(Bruce Russett)의 「세계정치, 사회지표편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Bruce M Russett, et al(eds.), *World Handbook of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s*(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 1964)

여기에선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각국 정부의 구조와 그 성격을 규명하려고 했다.

4) 바우어편저인 「사회지표론」중 체계 이론적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예로 회계기법인 대차대조표를 사회분석에 활용한 그로스(B. Gross)의 「구조-성과 모형(structure-performance model)」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구조(인적, 비인적 자원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하위체계들의 구성)는 사회경제적 진행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며, 성과(획득된 투입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산출로 전환된 결과)의 손익차이는 구조에 다시 축적된다는 것을 말한다.

Bertram M.Gross, "The State of the Nation:Social Systems Accounting", Raymond A.Bauer(ed.), *Social Indicators*(Cambridge:M.I.T. Press, 1966), pp.154~271.

5) 사회보고는 한 사회의 현황을 나타내줄 뿐아니라 그 사회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 할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회계와 다르다. 사회보고에 관한 연구는 17세기 계몽주의 시대때부터 연원된 사회통계는 차치하고라도, 1929년 미국 후버대통령의 「대통령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Social Trend)」의 보고서인 「미국의 최근 사회동향(Recent Social Trend in the United States)」에서 부터 사회변동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되었고 국제연합은 1952년부터 「세계의 사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출간해 생활수준의 향상또는 변동을 측정하였다.

Judith Innes De Neufville, *Social Indicators and Public Policy:Interactive Processes of Design and Application*(Amsterdam: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Co., 1975), pp.40~41.

UNSC:UN Statistical Commission, *Draft Guidelines on Social Indicators*(United Nations:E/CN, 3/488, 1976)

에 활용되어 사회변화의 측정과 정책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지표는 1970년대 후반서부터 정책과학에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키위한 정치적 처방전⁶⁾을 제시키위한 분석 및 평가도구로써 활용되어 지기 시작했으며 사회지표라는 말대신 정책지표라는 용어가 새롭게 나타났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책지표에 관한 연구로는 맥-뢰(Macrae, Jr.)의 「정책지표(policy indicator, 1985)」가 있고⁷⁾ 이밖에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는 70년대에 연구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체림스키(Chelimsky)⁸⁾나 네크미아스(Nachmias)⁹⁾등의 저작이 돋보이며 이외에 정책평가와 관련지워서 사회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랜드(Kenneth C. Land)의 「사회지표모형(social indicator models)」이나 스프리너(Michael Sprineer)의 「사회지표, 보고 그리고 회계(social indicators, reports and accounts)」등이 있다.¹⁰⁾ 정책 지표로서 사회지표개발에 관한 논의는 이상과 같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정책의 지표를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시키려는 종합적 노력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물론 지리학이나 인구학, 경제학 등에서 부분적 지표를 개발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 연구에 불과하며 총괄적인 지역지표로써의 기능을 수행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금의 실정이다.

이러한 양태는 국외적 사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국내연구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는 대한국토계획회, 국토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판단적 연구만이 그동안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도된 지역개발연구를 도시개발연구의 일부분으로 인정한 관례로 연구의 범위나 방법등이 극히 제한을 받아온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프리드만(J. Friedman), 아이사드(W. Isard)를 중심으로 지역과학이란 새로운 학문의 파라다임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고¹¹⁾ 이러한 연구의 흐름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활동과 노력의 집적으로 새로운 지역지표의 분야에 새지평을 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지표연구는 이미 언급했듯이 사회지표연구가 그 중심을 이루어 왔다. 이들 준거기준은 흔히 사회발전의 지표로서의 종합적인 사회적 제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목록으로서 정책정보의 역할을 하게된다는데 있다. 사회지표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다. 사람의 생의 순환유형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여 출생율, 유아사망율, 청소년범죄율, 고용, 소득 등으로 나누는 분류도 있고, 지표가 주관적이나 객관적이나에 따라 주관적 사회지표와 객관적 사회지표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분류는 객관과 주관의 영역 그리고 그 내용 및 성도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상 문제를 지닌다. 예컨대 소득수준은 객관적 인식과 주관적 인식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로써의 소득수준은 객관적 사회지표로 볼 수 있으나

6) Morton Kroll,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Fremont J. Lyden, George A. Shipman and Morton Kroll(eds.), *Policies, Decisions and Organizations*(New York: Meredith Corporation, 1969), pp 9~27

7) Duncan Macrae, Jr., *Policy Indicators*(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5)

8) Eleanor Chelimsky, *Program Evaluation: Patterns and Direction*(Washington D.C. ASPA, 1985)

9) David Nachmias, *Public Evaluation*(N.Y.: St. Martin's Press, 1979)

10) Kenneth C. Land, "Social Indicator Models: An Overview," K.C. Land and Seymour Spilerman(eds.), *Social Indicators Models*(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5), p.14

Michael Sprineer, "Social Indicators, Reports and Accounts"

11) John Friedman(ed.), *Regional Policy*(Cambridge: The M.I.T Press, 1975)

Walter Isard, *An Introduction to Regional Science*(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5)

_____, *Methods of Regional Analysis: An Introduction*(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60)

수치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실제지역주민이 자신의 소득수준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주관적 인식을 물을때는 주관적 사회지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를 보면 크게 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소단위로는 225개로 되어 있다.¹²⁾ 즉 크게 인구부문, 소득·소비부문, 고용·인력부문, 교육부문, 보건부문, 주택·환경부문, 사회부문, 문화·여가부문,公安부문으로 구성되어 각 지표군마다 10~30개의 지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지표가 사회부문을 총량화하는 지표로서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정책수립 및 집행,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지역지표는 지역부문을 총량화하는 지표로서 지역개발정책을 형성, 집행,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지역지표의 개념과 이론적 준거체계

지역지표는 그 대상이 지역이므로 사회지표와는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구분된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지표로서의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G.N.P.)은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 G.R.P.)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구분에 있어서도 인구, 소득, 고용 등의 국가적 개념이 아닌 지역인구, 지역간의 인구이동등의 개념으로 바꾸어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지표를 크게 지역 지리학적 지표(Regional Geographic Indicators), 지역인구학적 지표(Regional Demographic Indicators), 지역경제학적 지표(Regional Economic Indicators), 지역복지 및 서비스지표(Regional Welfare and Service Indicators), 지역정치 및 행정지표(Regional Politic and Administration Indicators)로 나누어 한국적 지역상황에 적용해 측정해 보고자 한다.

이 지표를 측정하는데는 객관적 지역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주관적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선 객관적 지표만으로 국한시키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의 이론적 준거체계로 가설적으로 채택한 지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첫째, 지역지리학적 지표는 지역의 생태적 환경을 지표화하는 것으로 객관적 지표로는 개발권역의 기후, 토양, 지리적 위치, 중심성, 공간구조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지리학적 지표를 발굴 체계화시킬 것이며 주관적 지표로는 지역주민의 자연환경만족도, 친밀도 등이 지표로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인구학적 지표는 지역간의 인구현황을 지표화하는 것으로 객관적 지표로는 지역별 인구규모, 지역별 전입, 전출율, 지역별이동율, 지역인구성장율, 도시화율 등이 될 것이며 주관적 지표로는 인구밀도에 대한 평가, 이동율에 대한 평가등이 지표로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경제학적 지표는 지역개발을 위한 핵심적 지표로서 지역개발은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될 것이며 이러한 지표를 끌고루 충족시켜주므로써 지역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역기능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객관적 지표 못지않게 주관적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객관적 지표로서는 지역주민의 소득, 지역의 실업율, 고용, 소득격차, 소득집중도외에 기업투자를 위한 입지조건, 공장의 부지면적,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농업수입 등 다양한 지표군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주관적 지표로는 지역소득수준의 형성성에 대한 만

12) 한국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1985), 26~35면.

주학중, "사회지표의 체계와 활용", 「한국개발연구」, 제12권(1980), 48~50면.

족도, 지역소비수준 만족도, 타지역과 비교우위인식도 등이 될 것이다. 네째, 지역복지 및 서비스지표는 지역경제지표가 지역개발의 양적인 지표였다면 이는 지역개발의 질적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교육, 보건, 의료수준, 주택, 상하수도, 교통, 여가수준, 문화활동수준 등의 지표를 개발하는 것인데 주관적 지표로는 교육수혜만족율, 의료혜택만족도, 주거수준만족도 등이 지표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정치 및 행정지표는 지역의 투표율, 득표성향, 이익단체수, 정부재정자립도, 민원접수율 등의 지역정치성향을 객관지표화할 수 있으며 지역정부신뢰도, 참여도, 타 지역과의 갈등정도등의 주관적 지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관지표로서 지역정부의 정책수행관리능력을 연계시키는 정보, 협조체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행정관리자의 관리능력의 측정등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한국지역개발의 지역지표를 통한 실증적 분석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앞에서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적 지표들을 가지고 현재 한국의 지역개발의 상태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한다. 실증적 검증을 위한 분석준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지리학적 지표와 지역인구학적 지표로는 특화시킨 11개도시의 평균가구원수와 전국평균 가구원수¹³⁾, 그리고 이 11개도시의 연평균인구성장율과 전국연평균인구성장율을 사용한다. 이는 도시지역의 성장배경과 도시지역간 상호관계, 도시지역구성내용을 판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지표로 선정하였다. 둘째, 지역경제학적 지표로 특화된 11개도시의 연평균차량증가율과 전국연평균차량증가율, 11개도시의 총종업원수와 그 증가추세 그리고 11개도시가 사용한 결산규모를 사용한다. 이는 산업화의 상징인 자동차의 보유증가율을 살펴봄으로써 지역간의 지리적 이동과 지역변천의 패턴, 내용변화, 인구이동관계를 고찰해 볼 수 있고 소득수준향상과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총종업수를 분석해 봄으로써 도시지역의 산업화 여부와 소득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고 도시의 결산규모를 살펴봄으로써 도시지역의 경제력을 판단하고 지역간의 경제적 균등도를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되어 선정하였다. 셋째, 지역복지 및 서비스지표로 특화된 11개도시의 총병상수를 사용한 의료시설증가추세와 전국증가추세, 그다음 탁아소, 영아원, 양노원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추세를 사용한다. 이는 사회복지지표로써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의료시설 및 의료요원과 지역인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즉 그 지역에 소재해있는 병원의 수와 지역주민간의 비율, 병원에 시설된 병상수와 지역주민간의 비율, 의료인과 지역주민간의 비율등으로 해당지역의 사회복지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여러지표중 총병상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간의 차이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지역발전의 균형도여부를 분석토록 한다. 그리고 앞에서는 의료수용능력중 하나인 병상수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간 사회복지의 정도를 가늠하여 보았으나 여기에선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탁아소, 영아원, 양노원 등의 시설규모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토록한다. 네째, 지역의 위락 및 문화적 발전정도의 차

13) 여기 분석에서 사용되는 전국치는 분석편의상 선정된 11개도시의 해당 각 자료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이를 분석키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는데 이를 위한 분석자료는 각 지역의 종합경기장의 연면적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 지역의 복지, 위락 및 문화공간의 발전정도의 차이를 분석키위해 도시공원의 증가추세를 살펴 보았으며 이를 위한 자료로는 각 지역의 도시공원 시설면적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지역의 복지 및 서비스내용을 잘 대변해 줄 수 있으며 또한 지역간의 균등도나 불균등도등을 반영시켜 줄 수 있으리란 판단하에 선정된 것이다. 다섯째, 지역정치 및 행정지표는 아직 우리나라의 실정상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선정에 따른 실증적 분석이 별로 의미를 아지는 지닐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본 연구에선 생략하기로 한다.

2. 분 석

(1) 특화시킨 도시의 평균가구원수 분석

먼저 1980년부터 1984년까지 5년동안의 11개도시의 가구원수와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표 1참고)

(표 1) 1980~84년까지의 각도시 가구원수와 인구수(단위:명, 호)

가구원수, 인구원수 도시명	1980년 가구원수	80년 인구수	81년 가구원수	81년 인구수	82년 가구원수	82년 인구수	83년 가구원수	83년 인구수	84년 가구원수	84년 인구수
서울	1847877	8366756	1915104	8676037	2000678	8916481	2116334	9204344	2245595	9501413
부산	690126	3160276	704322	3249643	735274	3343783	765236	3395171	803010	3495289
인천	244610	1084730	254184	1141705	265880	1179558	281350	1220311	304791	1295107
수원	71154	310757	71844	324225	76575	348161	85833	373636	93694	402319
춘천	33530	155247	33803	159520	34817	162373	36343	165275	37773	173595
청주	52696	252985	56456	267228	58345	275944	67082	305175	73158	328258
대전	127431	651641	129848	668212	136083	696463	158502	800397	170458	842429
전주	72862	366997	74211	375703	79580	395593	84674	409975	88854	421751
광주	153184	727627	159308	769777	167141	813722	176596	843465	183874	869874
대구	364268	1607458	415220	1838037	438081	1904319	459223	1958812	477824	2012039
마산	84168	386773	87672	400501	91635	413034	96837	424227	102272	440773

출처: 「한국도시연감」 81~85년판

우선 이 자료를 가지고 11개 도시의 과거 5년간의 평균가구원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¹⁾(표2 참고)

(표 2) 매년 평균가구원수 및 5개년 평균가구원수(단위:명, 호)

평균가구원수 도시명	80년 평균가구원수	81년 평균가구원수	82년 평균가구원수	83년 평균가구원수	84년 평균가구원수	5개년 평균가구원수
서울	4.53	4.53	4.46	4.35	4.23	4.42
부산	4.58	4.61	4.55	4.44	4.35	4.51
인천	4.43	4.49	4.44	4.34	4.25	4.39
수원	4.37	4.51	4.55	4.35	4.29	4.41
춘천	4.63	4.72	4.66	4.55	4.60	4.63

14) 평균가구원수(AHHS Average Household Size)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AHHS_{ji} = \frac{\sum POP_{ji}}{\sum HH_{ji}} \quad (j = \text{지역}, i = \text{년도})$$

이것은 해당지역과 년도에 따라 매년단위로 계산해낼 수 있다.

$$80 \sim 84 \text{ AHHS}_{ji} = \frac{\sum_{i=1}^5 AHHS_i}{10}$$

이외에 $P_t = PO^{at}$ 공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청주	4.80	4.73	4.73	4.55	4.49	4.66
대전	5.11	5.15	5.12	5.05	4.94	5.07
전주	5.04	5.06	4.97	4.84	4.75	4.93
광주	4.75	4.83	4.87	4.78	4.73	4.79
대구	4.41	4.43	4.35	4.27	4.21	4.33
마산	4.60	4.57	4.51	4.38	4.31	4.47
						전국평균가구원수 4.54

출처 「한국도시연감·81~85년판」

그 다음 이 자료를 기준으로해서 전국평균가구원수를 계산하면 4.54가 나온다.¹⁵⁾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11개도시의 평균가구원수가 4.54명임을 알 수 있으며 이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대전(5.07), 전주(4.93), 광주(4.79), 청주(4.66), 춘천(4.63) 순이다. 이와 반대로 대구(4.33)와 인천(4.39)이 전국평균에 미달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에 기인된 타이가 아닌가 사료된다. 즉 인천은 서울의 주요 위성도시이고 거점성장도시의 배후지이기 때문에 주로 핵가족중심의 근로중산계층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되며, 대구도 인근의 공업지역과 자체 도시내의 공업권형성(특히 섬유산업 등)으로 인해 핵가족중심의 근로중산계층이 많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2) 연평균 인구성장율 분석

1980년 부터 84년까지의 11개도시의 연간 인구성장율은 다음과 같다.¹⁶⁾(표 3참고)

(표 3) 1980~84년까지의 각 도시의 연간 인구성장율(단위 : 백분율)

연간인구성장율 도시명	80~81년간의 인구성장율	81~82년간의 인구성장율	82~83년간의 인구성장율	83~84년간의 인구성장율	81~84년간의 각 도시의 평균인구성장율
서울	.0369655	.0277136	.0322844	.0322749	.0323096
부산	.0282782	.0289693	.0153682	.0294884	.0255260
인천	.052546	.0331548	.0345494	.0612926	.0453803
수원	.0433393	.0738253	.0731702	.0767672	.0667755
춘천	.0275239	.0178849	.0178724	.0503403	.0284054
청주	.0562998	.0326163	.1059309	.0756386	.0676214
대전	.0254296	.0422785	.1492312	.0525139	.0673633
전주	.0237223	.0529408	.0363555	.0287237	.0354356
광주	.0579280	.0570880	.0365518	.0313101	.0457195
대구	.1434433	.0360613	.0286155	.0271731	.0588233
마산	.0354937	.0312933	.0270995	.0390027	.0332223
					전국인구증가율 .0460529

출처 「한국도시연감·81~85년판」

15) 전국평균가구원수(NAHHS National Average Household Size)의 계산공식

$$80\sim84NAHHS = \frac{\sum_{i=1}^{11} 80\sim84AHHS}{11}$$

16) 각 지역의 매년 인구 증가율(AAPGi)의 계산공식

$$80\sim84 AAPGi = \frac{\sum_{i=1}^5 AAPGi}{5} \quad (i = \text{년도})$$

$$tAAPGi = \frac{t_1 \cdot POPi - t_0 \cdot POPi}{t_1 \cdot POPi}$$

이 자료를 가지고 전국연평균 인구성장율을 계산하면 4.6%가 나온다.¹⁷⁾ 이것은 전국의 연평균인구 성장율이 추계하여 4.6%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시간 비교를 해보면 청주(6.76%)와 대전(6.73%)이 제일 높고 부산(2.55%), 춘천(2.84%)이 제일 낮은 인구성장율을 보여 주고있다.

서울(3.23%)이나 부산이 전국인구 성장율보다 낮은것은 이 지역에 대한 인구를 억제하려고 하는 인구억제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춘천이 저조한 인구성장율을 보이는 것은 소비도시나 군사도시로의 성장에 한계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83년에서 84년까지의 인구성장율이 갑자기 증가된 이유는 관광도시나 군사도시로의 필요성의 재고려에 기인된 정책적 요인의 탓이 아닌가 사료된다. 또 전주(3.54%)도 쇠퇴해가는 도시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마산(3.32%)도 수출자유지역의 성장의 한계및 쇠퇴등으로 공업도시로의 기능을 서서히 상실하면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반해 청주나 대전이 예상외로 높은 인구성장율을 보이는 이유는 중부권개발정책의 탓에 기인된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인구의 증가요인은 자연적 성장요인보단 인위적인 인구요인에 따른 성장이 보다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¹⁸⁾

(3) 연평균 차량증가율 분석

1980년부터 84년까지의 5년동안의 11개도시의 연간 차량증가대수는 다음과 같다. (표 4참고)

(표 4) 1980~84년까지의 각 도시의 연간 차량대수(단위: 대)

도시명 \ 차량대수	80년의 차량대수	81년의 차량대수	82년의 차량대수	83년의 차량대수	84년의 차량대수
서울	206778	221644	253647	314777	377220
부산	62419	67053	71017	80981	93783
인천	20051	20395	23801	29979	36496
수원	8691	9286	8781	11092	14428
춘천	2844	3013	3156	4336	3769
청주	4682	4136	5466	6724	8549
대전	10871	12391	14105	18135	22650
전주	6451	7121	7556	9029	10464
광주	12422	13346	20703	18832	21965
대구	36127	39251	43843	51093	60356
마산	8100	8650	9529	11129	10973
계	379436	406286	461604	556107	660653

출처: 「한국도시연감: 81~85년판」

17) 전국연평균인구성장율(NAAPG) 계산공식.

$$80\sim 84 \text{ NAAPGi} = \frac{\sum_{i=1}^5 \text{AAPGi}}{5}$$

18) 인구의 증가는 크게 보아 자연적 증가와 인위적 증가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증가란 사망하는 사람보다 출생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며 인위적 증가란 인구유입이나 유출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입증가 현상이다. 이를 간략히 개관하기위해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underbrace{\text{POP}_{t_1}}_{t_1 \text{ 시점의 인구}} = \underbrace{\text{POP}_{t_0}}_{t_0 \text{ 시점의 인구}} + \underbrace{(B-D)}_{\text{자연적증가}} + \underbrace{M^*}_{\text{인위적 증가}} + \underbrace{E}_{\text{오차}}$$

이 자료를 기초로해서 연평균차량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참고)

(표 5) 1980~84년까지의 연평균 차량증가율(단위 : 백분율)

연 도	81~80	82~81	83~82	84~83	80~84
도시명	차량증가율	차량증가율	차량증가율	차량증가율	연평균차량 증가율
서울	.0718935	.1443892	.2410042	.1983722	.1639148
부산	.0742402	.0591174	.1403044	.1580865	.1079371
인천	.0171563	.1670017	.2595689	.2173855	.1652781
수원	.0684616	-.054383	.2631819	.3007573	.1445045
춘천	.0594233	.0474610	.3738910	-.130766	.0875024
경주	-.116617	.3215667	.2301500	.2714158	.1766289
대전	.1398215	.1383262	.2857143	.2489661	.2032070
전주	.1038599	.0610869	.1949444	.1589323	.1297059
광주	.0743842	.5512513	-.090373	.1663658	.1754070
대구	.0864727	.1169906	.1653628	.1812969	.1375307
마산	.0679012	.1016185	.1679085	-.014017	.0808527
					전국평균자동차증 가율 .1429517

출처 「한국도시연감 80~85년판」

11개 도시중 연평균 차량증가율이 가장 높은것은 대전(20.3%)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도시는 청주(17.6%), 광주(17.5%), 인천(16.5%), 서울(16.4%)순이다. 비교적 증가율이 낮은 도시는 마산(8%), 춘천(8.7%), 부산(10.8%), 전주(12.9%)순이다. 그 다음 전국 연평균 차량증가율은 14.3%이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전국연평균 인구성장율 4.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차량증가율이 인구성장율을 압도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인구억제 및 분산정책에 의해 성장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산업화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인해 교통수단의 질적, 양적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셋째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반면 인구억제를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홍보의 체계화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기인되었으며, 넷째로는 보건, 복지 및 교육정책의 타으로 국민의 인구에 대한 인식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추론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산의 연간 자동차증가율이 가장 저조한것은 자유수출지역으로 상징화될 수 있는 공업화를 위한 추진력이 감소되어 도시자체의 기능이 다소 변화되고 쇠퇴되는 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춘천과 같은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춘천도 군사도시, 관광도시로의 기능이 점차 하락됨에 따라 도시가 쇠퇴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기할점은 부산지역도 전국연평균증가율 보다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총 종업원수의 증가추세 분석

5개년간의 각 도시 총종업원수의 증가비율로 볼 때 마산이 37.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대구(18.9%)이며, 그 다음은 청주(12.2%), 인천(2.9%), 부산(2.2%)순으로 되어있다. (표 6참고)

(표 6) 80년~84년까지의 각도시 총종업원수와 증가비율(단위 : 명, 백분율)

연도 총업원수	80	81	82	83	84
전국치	1903797 -.002846	1898378 .053608	2000147 .018324	2036799 -.019062	1997973 .0125061
서울	623662 -.236174	476369 -.103713	426963 -.050941	405213 -.064519	379069 -.113837
부산	311724 .107903	345360 -.019342	339680 .078696	365333 -.077781	336917 .022369
인천	193265 .124378	217303 -.014086	214242 .02759	220155 -.0191986	215931 .0296763
수원	32364 .067389	34545 .032855	35680 -.06597	33326 -	33326 .0085675
춘천	4503 -.015762	4432 -.220895	3453 .0266434	3545 .025105	3634 -.046227
청주	17953 -.026123	17484 .104438	19310 .530864	29516 -.120985	25945 .122048
대전	46091 -.223991	35767 -.144798	30588 .0950045	33494 .208156	40466 -.016407
전주	13818 -.084237	12654 .074758	13600 -.069411	12656 .022044	12935 -.014211
광주	20620 -.060329	19376 .331544	25800 -.028527	25064 -.211872	19503 .005203
대구	83367 .735854	144713 -	144713 .024026	148190 -	148190 .1899703
마산	21387 -.055921	20191 1.406072	48581 .096277	53258 .047931	55811 .373589

출처 : 「한국도시 연감 : 80~85년판」

전국평균보다 저조한 지역은 대전(-1.6%), 춘천(-4.6%), 서울(-11.3%)순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산이나 대구, 청주지역은 신흥경공업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체계를 지니고 많은 수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지역은 인구분산 및 억제정책과 공업단지 등의 지방이전등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경공업울 주축으로한 노동집약적 산업체계가 지방화시대를 열게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위치를 지방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벗어날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 총종업원의 수의 증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 지역이 생산도시로서의 성격보다는 소비도시로의 변모를 점차적으로 띄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예정된 제2의 행정수도로서의 기능변화와 도시성격의 변이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시결산규모의 증가추세분석

5개년간의 각 도시의 시결산규모의 증가추세를 볼 때 수원이 34.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인천(34%)이며, 그 다음은 대구(31.1%), 부산(29.6%), 대전(26.8%)순으로 되어있고 11개도시의 평균증가율(25.1%)에 미달하는 도시는 광주(24.7%), 청주(24.1%), 마산(22.9%), 서울(22.4%), 춘천(18.7%), 전주(7.7%)순이다(표 7,8참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결산규모가 비교적 지역적 차이와는 무관하게 비례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수원이나 인천, 대구, 부산, 대전 등의 시결산 규모의 증가비율이 타 지역

보다 높은 이유는 수원이 경기도의 도청소재지로 행정기능이 변화되고 서울의 위성도시로의 발전이 도시성장의 추진력을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 대구, 부산 등도 각기 위성도시 및 지역성장거점도시로의 기능강화에 기인된듯 하며 대전은 예정된 제2행정수도로서의 기능변화와 중부권개발 등에 기인된 탓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마산, 춘천, 전주 등은 이전에 비해 도시로의 활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서울은 워낙 재정적으로 비대해 있는 만큼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에 부가해 서울지역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는 제반정책적 규제요인들이 이러한 흐름에 상승화작용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있는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표 7) 80~84년까지의 각 도시의 시결산액(단위 : 1000원)

연도 시 결산규모	80	81	82	83	84
전 국 치	1380463696	1641291310	2276869266	2866772314	3295018557
서 울	672890110	774603583	1100841546	1332095397	1483363890
부 산	165898772	185120929	273807323	37680261	457487981
인 천	49143755	65284168	106727634	117049902	152322512
수 원	12817993	17710396	22236145	31979786	41265361
춘 천	12101257	10039242	13078267	15404509	22133666
청 주	16310636	14445680	18464459	28820190	35680606
대 전	27159805	33099141	42234509	49546640	69536323
전 주	3103448	31785710	31645515	37512484	36228786
광 주	3485340	50411390	54857108	75873739	83949480
대 구	74577464	91141139	122430085	177589249	217882065
마 산	18024695	26751802	37979476	42119850	38029953

출처 : 「한국도시연감 . 80~85년판」

(표 8) 80~84년까지의 각 도시의 시결산증가율(단위 : 백분비)

연도 도시명	81~80	82~81	83~82	84~83	평 균
전 국 치	.189	.387	.259	.149	.246
서 울	.151	.421	.201	.122	.224
부 산	.116	.479	.376	.214	.296
인 천	.328	.635	.284	.111	.340
수 원	.382	.256	.438	.290	.342
춘 천	-.170	.303	.178	.437	.187
청 주	-.115	.278	.561	.238	.241
대 전	.219	.276	.173	.403	.268
전 주	.005	-.004	.185	.122	.077
광 주	.446	.088	.384	.106	.247
대 구	.222	.343	.451	.227	.311
마 산	.484	.420	.109	-.097	.229

평균증가율 .251

출처 : 「한국도시연감 . 80~85년판」

(6) 총병상수를 사용한 의료시설 증가추세 분석

1980년부터 84년까지의 의료시설인 총병상수의 수는 다음과 같다(표 9참고).

(표 9) 80~84년까지 각 도시의 총 병상수(단위: 개)

연도	80	81	82	83	84
전국치	55706	58568	66924	80008	87559
서울	19349	19520	21825	23270	24987
부산	6352	7274	7765	8314	10116
인천	2094	2284	2694	3908	4038
수원	874	788	794	1236	1424
춘천	391	395	382	378	815
청주	834	778	890	1215	1416
대전	1217	1544	1744	2278	2300
전주	1030	1078	1060	1152	1237
광주	2521	2627	2717	3022	3297
대구	3442	3434	4001	4855	5311
마산	1010	1495	1680	1774	1662

출처: 「한국도시연감: 81~85년판」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병상수의 연간 증가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표 10참고)

(표 10) 80~84년까지의 각 도시의 총병상증가율(단위: 백분율)

총병상수증가율 도시명	81~80 연증가율	82~81 연증가율	83~82 연증가율	84~83 연증가율	각 도시의 평균 증가율
전국치	0.051376	0.142671	0.195505	0.094378	0.1208700
서울	0.008376	0.118084	0.066208	0.0737859	0.0666137
부산	0.1451511	0.0675006	0.0707018	0.216748	0.125024132
인천	0.090735	0.1795096	0.450631	0.033265	0.1885352
수원	-0.098398	0.007614	0.556675	0.15210355	0.1544986
춘천	0.01023017	-0.0329113	-0.0104712	1.15608465	0.28073305
청주	-0.0671462	0.1439588	0.365168539	0.16543209	0.1518533
대전	0.2686935	0.1295336	0.30619266	0.00965759	0.17851936
전주	0.046601941	-0.01669758	0.0867924	0.0737847	0.04762038
광주	0.0420468	0.0342596	0.11225616	0.09099933	0.0699299
대구	-0.00232423	0.16511357	0.2134406	0.0939237	0.11753994
마산	0.480198019	0.123745819	0.038095	-0.06313416	0.14472622

출처: 「한국도시연감: 80~85년판」

병상수의 연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춘천(28%)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18.8%), 대전(17.8%), 수원(15.4%), 청주(15.2%), 마산(14.4%), 부산(12.5%)순으로 되어 있으며 전국평균치인 12%이하로 하회되는 증가율을 지닌 도시는 전주(4.7%), 서울(6.6%), 광주(6.9%), 대구(11.7%)순으로 되어 있다. 비교적 병상수의 증가율이 저조한 지역은 전주와 광주인 호남권이고 서울이나 대구의 증가율이 낮은것은 이미 상당수의 병상수가 확보되었으며 따라서 절대수가 크므로 증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며 대전이나 청주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것은 중부권개발과 연계되어지는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개 중간정도의 도시의 병상수의 증가가 괄목할만하며 대도시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추세에 있고 호남지역의 중도시의 증가비율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7)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추세분석

1980년에서 84년까지의 사회복지시설¹⁹⁾의 증가추세에 대한 자료와 증가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11참고)

(표 11) 80~84년까지 각 도시의 사회복지시설수와 연간 증가율(단위 개소, 백분율)

연도 도시명	80	81	82	83	84(참조)
전국치	4656 0.154853952	5377 0.128696277	6069 0.048442907	6363 0.110664386	460
서울	1054 0.190702087	1255 0.125099602	1412 0.007790368	1423 0.107864019	70
부산	567 0.086417753	616 0.254870130	773 0.089262613	842 0.147517499	64
인천	150 0.006666666	151 0.120000	169 0.366863805	231 0.164510191	19
수원	26 1.307692308	60 0.016666667	59 0.084745763	64 0.458590468	5
춘천	45 -0.0222222	44 0.386363636	61 -0.22950819	47 0.04487739	5
청주	68 0.352941176	92 0.0869522	100 0.20000	120 0.213299231	7
대전	132 0.000001	132 0.00530303	139 0.374100719	191 0.14237707	20
전주	95 0.136842105	108 -0.0555556	102 0.18604510	121 0.089187020	8
광주	145 0.075862069	156 0.044971795	163 -0.134949325	141 -0.0047451514	18
대구	220 0.368181818	301 0.049833887	316 -0.006329114	314 0.286730525	39
마산	76 0.157894177	88 0.079545455	95 0.021052632	97 0.086164275	8

출처 「한국도시연감 80~85년판」

사회복지시설의 연간증가율을 살펴보면 수원(45.8%)이 제일높고 그 다음이 대구(28.6%)이며, 그 다음이 청주(21.3%), 인천(16.4%), 부산(14.3%)순이다.

전국치(11.1%)에 미달하는 도시는 서울(10.7%), 전주(8.9%), 마산(8.6%), 춘천(4.4%), 광주(-0.4%)순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구증가율과 어느정도 비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은 경기도 행정중심지로의 기능변화, 서울위성도시로의 발전등이 인구유입을 낳고 이에따라 복지시설도 증가한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대구, 청주, 인천, 부산등도 각 지역의 성장거점도시로의 기능과 이에 따른 인구유입 그리고 그에 비례한 복지시설의 확충을 그 논거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서울의 증가율의 저조는 인구억제 및 분산정책과 타 지역과 비교해볼 때 사회복지시설의 상대적 비대로 인한 증가율의 둔화등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전주, 마산, 춘천등은 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도시기능의 변화 및 약화에 기인된 증가율

19) 여기서 분석대상이 된 사회복지시설분야 1980년부터 1983년까지의 자료는 탁아소, 영아원, 육아원, 지체부자유아보호시설, 부랑아 보호시설, 직업보호시설, 양로원, 경로당, 정신박약아보호시설, 아동상담소, 모자보호시설, 근로자합숙소, 윤락여성보호시설, 윤락여성보호시설, 부녀상담소를 집계하였으나 1984년 자료는 자료의 불비등으로 인해 영아원, 육아원, 부랑아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양로원, 심신장애자, 정신질환자보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 직업보호시설을 앞에 자료와 분리하여 집계하였다.

둔화로 판단할 수 있으며 광주는 이러한 요인이외에 지역성에 기인된 증가율의 둔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 공공체육시설의 증가추세분석

공공체육시설로써 종합경기장의 연면적 및 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대구(83.79%)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인천(3.4%), 수원(1.15%), 부산(0.4%), 청주(0%)순이며, 이에 반해 광주를 비롯한 서울, 대전, 춘천, 전주, 마산 등은 오히려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다(표 12참고)

(표 12) 80~84년까지의 종합경기장연면적 및 평균증가율(단위 : m², 백분율)

종합경기장연면적 (평균증가율)	80	81	82	83	84
전 국 치	2108146 -0.0541	1994072 0.028672	2051241 -0.0765	1902216 -0.01445	1874720 -0.0291
서 울	135841 -0.02089	107469 0.9239	206765 -0.3408	136301 -0.4346	77064 -0.0151
부 산	56095 0	56095 0	56095 0.001747	56193 0	56193 0.000936
인 천	66654 0.4506	96687 0	96687 -0.3119	66526 0	66526 0.0347
수 원	33881 0	33881 0	33881 0	33881 0.0461	35443 0.0115
춘 천	63185 0	63185 -0.5301	29686 0	29686 -0.0267	28894 -0.1392
청 주	28256 0	28256 0	28256 0	28256 0	28256 0
대 전	37686 0	37686 0	37686 0.3764	51873 -0.5887	21334 -0.0531
전 주	138843 -0.1279	121075 -0.7166	35041 0	35041 0	35041 -0.2096
광 주	24641 0	24641 0	24641 0	24641 0	24641 0
대 구	119067 0	119067 -0.7593	28664 3.2231	121051 0.8881	228556 0.8379
마 산	240270 0	290270 -0.2978	168710 -0.7191	47385 0	47385 -0.2542

출처 : 「한국도시연감 : 80~85년판」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몇 몇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공공체육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개선도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연면적과 그에 대한 부대적 시설면적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 많음은 각 도시의 기형적 도시성장에 기인된 공간의 밀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9) 시설면적을 중심으로 본 도시공원의 증가추세 분석

시설면적을 중심으로한 도시공원의 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청주(2.1%)를 제외한 전 지역

의 평균증가율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13참고).

(표 13) 80~84년까지의 도시공원시설면적 및 평균증가율(단위 : m², 백분율)

도시공원시설면적 (평균증가율)	80	81	82	83	84
전 국 치	807965327 -0.4262	773529864 -0.7441	197980496 -0.0623	185650988 -0.1012	166864101 -0.3334
서 울	175915597 0.00515	176821547 -0.7491	44365732 -0.0541	41966293 0.1470	48136741 -0.16296
부 산	22195271 0.0008859	22214934 -0.5218	10622882 0.02585	10897514 0.0001137	10898753 -0.1237
인 천	29397439 0	29397439 -0.8647	3978342 0	3978342 0.0392	4134413 -0.20637
수 원	8188000 0	8188000 -0.9193	661000 0	661000 0	661000 -0.02298
춘 천	2127430 0.00108	2129726 -0.9934	14000 0	14000 0	14000 -0.2481
청 주	2219540 0.0009011	2221540 -0.9758	53650 -0.27866	38700 1.3385	90500 0.02123
대 전	29488000 0.0005087	29503000 -0.9881	351914 0	351914 0	351914 -0.2469
전 주	1542000 0.1642	17951523 -0.5798	7542852 -0.0121	7451852 -0.7849	114079 -0.7531
광 주	33876975 0.00751	36420000 -0.2389	27717528 0.00938	27977549 0	27977549 -0.0386
대 구	39225141 -0.3486	25548421 -0.3668	16185000 0.000157	16185247 0.0315	11695247 -0.1704
마 산	7826000 0.2849	10055572 -0.0920	9130000 -0.7913	1905000 -0.0131	1880001 -0.1529

출처 : 「한국도시연감 80~85년판」

이것은 앞의 공공체육시설의 증가추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한데 즉, 도시의 거형적 비대화에 의해 도시공간의 밀집화가 심화되고 이에 기인된 녹지공간의 잠식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도시발전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3. 분석 결과

연구분석체계에 따라 이론적으로 설정된 지역지표를 가지고 실제 한국의 지역상황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검증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11개 도시의 평균가공원수가 4.5명이며 이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대전, 전주, 광주, 청주, 춘천이고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대구와 인천이다. 이렇게 지역간에 차이가 생기는것은 위성도시나 성장거점도시의 특성을 지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지역적 특성차이로 사료된다. 둘째, 11개 도시의 평균 연간인구성장율은 4.6%이며 이것을 상회하는 지역은 청주, 대전 등이고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부산, 춘천 등이다. 이것은 인구억제 및 분산정책과 소비도시인가 생산도시인가에 따른 도시의 성격등에 따른 차

이로 여겨진다. 그리고 특기할만한 점은 인구의 증가요인은 자연적 성장요인보단 인위적인 인구이동요인에 따른 성장이 보다 인구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 11개 도시의 연평균 차량증가율은 14.3%이며, 이중 차량증가율이 가장 높은곳은 대전(20.3%)이며 그 다음으로 청주, 광주, 인천, 서울이고 비교적 증가율이 낮은 도시는 마산, 춘천, 부산, 전주이다. 그리고 전국 연평균인구성장율이 4.6%인데 차량증가율(14.3%)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구억제 및 분산정책에 의한 인구성장율이 감소되었고, 산업화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교통수단의 질적, 양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반면 인구억제 및 분산에 대한 국가홍보의 체계화와 국민의식의 변화 그리고 보건, 복지 및 교육정책의 영향등으로 기인된다. 그리고 특기할만한점은 마산이나 춘천등이 자동차증가에 있어 다소 부진한 이유는 도시기능의 변모에 크게 기인된다 하는 점이다. 네째, 각 도시의 총 종업원수의 증가비율을 볼 때, 마산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대구, 청주, 인천 등이다. 마산이나 대구, 청주지역은 신흥경공업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체계를 지니고 많은수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지역은 인구분산 및 억제정책과 공업단지등의 지방이전등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경공업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체계가 지방화시대를 열게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위치를 지방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총종업원수의 증가도 도시의 기능변화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증감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각 도시의 시결산규모의 증가추세를 볼 때 수원,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청주, 마산, 서울순이다. 수원이나 인천, 대구등의 시결산규모의 증가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수원이 경기도의 도청소재지로 행정기능이 변화되고 서울의 위성도시로의 발전이 도시성장의 추진력을 제공했고 인천, 대구, 부산 등도 위성도시, 지역성장거점도시로의 기능강화에 기인된듯하며 대전은 중부권개발에 힘 입은바 크다. 이에반해 마산, 춘천, 전주등은 이전에 비해 도시로의 활력성이 저하되고 있고 서울은 재정적으로 비대해지고 여러가지 규제정책등으로 증가율이 둔감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각 도시의 의료병상수의 증가율을 보면 춘천, 인천, 대전, 수원, 청주, 마산,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전주순이다. 호남권이 병상수의 증가율이 저조한 것은 지역적 불균형 발전과 유관한듯 하며 서울이나 대구의 증가율이 낮은 것은 이미 상당수의 병상수가 확보되어 병상수의 상대적 비율증가가 적은것으로 판단되며 대전이나 청주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중부권개발과 연계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정도의 도시의 병상수의 증가가 괄목한것은 도시의 기능적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일곱째,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율을 보면 수원, 대구, 청주, 인천, 부산, 서울, 전주, 마산, 춘천, 광주순이다. 수원은 위성도시 및 행정도시로의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변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대구, 청주, 인천, 부산등도 성장거점도시로의 기능과 연관된다. 이에반해 서울은 인구억제 및 분산 그리고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비대에 의한 증가율둔화로 볼 수 있다. 전주, 마산, 춘천등은 인구감소, 도시기능 변화에 기인되는듯 하며 광주는 이러한 요인 이외에 지역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덟째, 종합경기장의 증가율을 보면 대구, 인천, 수원, 부산, 청주, 광주, 서울, 대전, 춘천, 전주, 마산순이다. 그리고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공공체육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에대한 개선도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음은 각 도시의 기형적 도시성장에 기인된 공간의 밀집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홉째, 도시공

원의 증가율을 보면 청주를 제외한 전 지역의 평균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앞의 공체육시설의 증가추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한데 즉, 도시의 기형적 비대화에 의해 도시공간의 밀집화가 심화되고 이에 기인된 녹지공간의 잠식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람직한 도시발전의 방향에 역행되는 현상인 것이다.

IV. 평가 및 결론

분석에 따른 결과에 기초하여 이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좌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역지리학적 지표와 지역인구학적 지표로 선정된 11개도시의 평균가구원수와 인구성장율을 보면 도시성장과 인구증가와와는 깊은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지역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신흥공업지역이거나 행정도시로의 성장이 이루어진 지역, 개발정책의 영향을 받은 지역 그리고 대도시주변의 위성도시나 성장거점도시의 특성을 지니는 지역들은 평균가구원수나 인구성장에 있어 증가율이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구증가의 주된 요인이 자연적 성장요인 보다는 인위적인 인구이동요인에 따른 성장요인이 보다 주된 영향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표적 도시로 지칭되는 이러한 도시에서의 가구원수와 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농어촌, 공업, 상업도시등과 같은 지역의 기능적 분화에 따른 지역개발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데서 커다란 주의를 요하게 하는 것이다. 농어촌의 이농현상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해주는 실례인 것이다. 따라서 균형되고 올바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자원에 대한 분배가 보다 공정성있게 이루어지고 정책적 배려도 발전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나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보다는 전 지역의 발전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각에서 지역개발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지역경제학적 지표로 선정된 11개 도시의 평균차량증가율과 총종업원수의 증가추세 그리고 시결산규모를 보면 이것 역시 지역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억제 및 분산정책, 산업화추진의 결과, 교통수단의 변모, 소득수준향상, 도시기능변모, 정책적 전환등에 기인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점은 이러한 지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주된 요인이 국가에서 발표하는 지역정책의 방향이라는 점이다.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지리성 또는 역사성, 문화성에 기인된 발전요인보단 정책적 배려에 의해 지표의 수준이 지역간에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중부권개발등에 의해 대전이나 청주지역이 차량이나 총종업원수의 증가추세 그리고 시결산규모의 증대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실례가 될 수 있다. 또한 행정중심지로 변모됨에 따라 그리고 서울의 위성도시개발정책에 따른 성장등도 이러한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설때 지역간의 경제적 차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것은 일부 경제력이 큰 지역으로의 인구 및 지역경제력의 상대적 이동으로 인해 수용지역은 계속 경제적으로 비대화되겠으나 그렇지 못한 지역은 경제적 꺾박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된 올바른 국토개발을 위해선 제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특성의 계량적 비교에 의한 비용, 편익의 차

원에서만 그리고 일부이해계층의 이익적 견지에서만, 정책적 배려로 고려가 된다면,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계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지역적 특성과 정책간의 상관성을 고려하되 특정의 이익이나 정책적 배려보단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란 비편향된 시각에 기반을 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 지역복지 및 서비스지표로 선정된 11개 도시의 총 병상수를 중심으로한 의료시설증가추세와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추세를 보면 이것 역시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보아 정책적 이유와 도시기능의 변화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즉 정책적 이유로는 중부권개발정책을 들 수 있으며 중간정도의 도시의 병상수가 증가된것은 도시의 기능적 진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 대구등이 증가율이 낮은것은 이미 상당수의 병상수가 이미 확보되어 상대적 증가율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것을 볼 때 복지 및 서비스분야도 지역간의 차이뿐아니라 정책적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균형되고 올바른 지역개발을 하기위해선 정책적 고려의 객관화와 형평성있는 지역개발전략의 도입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을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복지 및 문화적 발전지표로 선정된 11개도시의 공공체육시설과 도시공원시설을 보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공공체육시설 및 도시공원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도시의 기형적 도시성장에 기인하여 녹지 및 위락공간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발전의 바람직한 양태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의 대부분의 도시의 지역개발이 양적 증가나 가시적 측면에 치우치고 질적이고 비가시적인 분야의 개발이 담보상태이거나 퇴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징표가 인구의 폭발에 기인한 도시녹지공간의 잠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배려가 지역개발정책에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Bibliography)

- 강병근, 「한국지방행정」(서울 일조각, 1966)
- 건설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 _____,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 김보현, 김용래,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서울 법문사, 1969)
- 김 원, 「도시행정론」(서울 박영사, 1982)
- _____, 「도시행정론」(서울 경영문화원, 1986)
- 김의원, “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평가”, 황명찬 편, 「토지정책론」(서울·경영문화원, 1985)
- 김종기, “테크노폴리스구상의 개념과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도시문제」, 1984.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1980~1985.
- _____, 「지방재정연감」1981~1985.
- 노용희, 「신도시개발론」(서울 박영사, 1973)
- 윤정섭, 「도시계획」(서울 문운당, 1981)
- 이성복, 「도시행정론」(서울 법문사, 1987)
- _____, “광역행정의 실태와 평가”, 「도시문제」, 1978.
- 이태우, 「도시개발론」(서울 문화세계사, 1973)
- 장지호, 「지방행정론」(서울 진명문화사, 1973)
- 정인홍, 「지방자치론」(서울 박영사, 1967)
- 주학중, “사회지표의 체계와 활용”, 「한국개발연구」, 제12권, 1980.
- 지 섭, “사회정책과 사회지표, 경제개발의 새로운 과제”, 「세대」(1971)
- 차배근, 「사회통계방법」(서울 세영사, 1978)
- 차일석, 「비교지방행정」(서울 박영사, 1964)
- 최무중, “한국지방행정의 토착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 「사회과학논집」, 제5집(서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2)
- 최상철, “한국적 도시화와 도시문제의 접근”, 최상철의 공편, 「한국도시개발론」(서울 일지사, 1981)
-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서울 법문사, 1980)
- _____, 「지역사회개발행정론」(서울 삼영사, 1983)
- 한국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5.
- 한국 도시행정협회, 「도시문제해설」(서울 한국도시행정협회, 1968)
- 한환택, 「한국지방행정론」(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8)
- _____, “도시 및 지역개발의 방향모색에 관한 연구”, 「도시문제」, 1973.
- _____, 「도시 및 지방행정론」(서울 법문사, 1985)
- Allen, K and Hermansen, T, *Economic Growth, Regional Problems and Growth Centres*, in EFTA 1969
- Alonso, W., *Location and Land Use*(Cambridge, Mass..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 Andrews, Frank M., and Stephen B Withey,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New York.Plenum Press, 1976)
- Barlow, I.M., *Spatial Dimensions of Urban Government*(New York:Research Studies Press, 1981)
- Berry B and Horton, F., *Geographic Perspective of Urban Systems*(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 1970)
- Bouderille, J.R., *Problems of Regional Economic Planning*(Glasgow:Edinburgh University Press

1966)

- Bureau of Census, *Social Indicators III*(Washington D.C.:U.S.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0)
- Chapin, S., Jr., *Urban Land Use Planning*(Urbanna, Ill.: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5)
- Chelimsky, Eleanor, *Program Evaluation:Patterns and Direction*(Washington D.C.:ASPA, 1985)
- Duncan, O.D., et al., *Metropolis and Region*(Baltimore: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9)
- Friedman, John(ed.), *Regional Policy*(Cambridge, Mass.:The M.I.T. Press, 1975)
- Gilbert, A., "The Arguments for Very Large Cities Reconsidered", *Urban Studies*, Vol.13, 1976.
- Goodall, B., *The Economics of Urban Areas*(New York:Pergamon Press, 1978)
- Gross, Bertram M., "The State of the Nation:Social Systems Accounting", Raymond A.Bauer(ed.) *Social Indicators*(Cambridge, Mass.:The M.I.T.Press, 1966)
- Isard, Walter, *An Introduction to Regional Science*(Englewood Cliffs,N.J.:Prentice-Hall, Inc., 1975)
- _____, *Methods of Regional Analysis:An Introduction*(Cambridge, Mass.:The M.I.T.Press, 1960)
- _____, *Location and Space Economy*(Cambridge, Mass.:The M.I.T.Press, 1958)
- Kroll, Morton,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Fremont J.Lyden, George A.Shipman and M. Kroll(eds.), *Policies, Decisions and Organizations*(New York:Meredith Corporation, 1969)
- Kuhn, J.A. and Bender, L.D., "An Empirical Identification of Growth Centers", *Land Economics*, Vol. 45, 1969
- Land, Kenneth C., "Social Indicator Models:An Overview," K.C.Land and Seymour Spilerman(eds.) *Social Indicators Models*(N.Y.:Russell Sage Foundation, 1975)
- Lasuen, J.R., "City Siz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Ekistics*, vol.24, 1967.
- Lineberry, R.L.and Sharkansky, I., *Urban Politics and Public Policy*(New York:Harper and Row, 1974)
- Lipmon, V.D., *Local Government Areas*(Oxford:Blackwell, 1949)
- Macrae, Duncan, Jr., *Policy Indicators*(London: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5)
- Meadow, D.H., et al., *The Limits to Growth*(New York:Universe Book, 1971)
- Miles, Ian, *Social Indicators for Human Development*(London:Frances Printer Publishers, 1985)
- Mills, E.S., *Urban Economics*(London:Scott, Feresman and Co., 1972)
- Nachmias, David, *Public Evaluation*(N.Y.:St.Martin's Press, 1979)
- Neufville, Judith Innes De, *Social Indicators and Public Policy:Interactive Processes of Design and Application*(Amsterdam: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Co., 1975)
- Nicholas, V., "Growth Poles:An Evaluation of Their Propulsive Effect", *Environment and Planning*, Vol. 1, 1969.
- Palen, J.J., *The Urban World*(New Yonk:McGraw-Hill, 1981)
- Poponoe, D., "On the Meaning of Urban in Urban Studies", *Urban Affairs Quarterly*, Vol.1, No.1, 1965
- Russett, Bruce M.et al(eds.) *World Handbook of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s*(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 1964)
- Smerk, G.,(ed.), *Reading in Urban Transportation*(Indianapolis, Ind.:Indiana University Press, 1968)
- Smith, W. S., *Urban Development*(Berkel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Sorokin, P. and Zimmerman, C.C., *Principles of Rural-Urban Sociology*(N.Y.:Holt, 1929)
- Stegman, M.A., "Accessibility Models and Residential Location", *Journal of America Institute Planners*, Vol.35, 1969.
- Stilwell, F.T.B., "Regional Growth and Structural Adaptation", *Urban Studies*, Vol.6, 1969.
- Tangri, Shanti, "Urbanization,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in Jason L.Finkle and Richard W.Gable(eds.), *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New York:John Wiley and Sons, 1971)

UNSC, *Draft Guidelines on Social Indicators*(United Nations:E/CN, 3/488, 1976)

Vincent, Tidswell, *Pattern and Process in Human Geography*(London:University Tutorial Press, 1976)

Whang, In-Joung, *Management of Rural Change in Korea*(Seoul: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1)

Wheaton, W.C., "Income and Urban Resid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7, 1977.

Wirth, L , "The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44, 1938.